



중앙은행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사람들이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왜곡한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호황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것이 거품이었다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경제는 불황에 빠지게 된다.

경기변동이 일어날 때 의회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불황이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근본적으로 불황은 중앙은행이 만든 왜곡을 없애는 자연스러운 경제현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인들과 중앙은행은 이를 거부한다. 대신에 그들은 양적 완화나 정부지출증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개입주의적 방식으로 경제를 정상화하고자 시도한다.

소위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키고 보통 사람들을 해치는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보주의자들은 모순적이게도 끊임없는 저금리와 제한 없는 화폐공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노동자 계급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통화창출이 바로 그들이 지적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임을 무시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 자신의 사업이 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을 통해 이익을 보았지만,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중앙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을 약속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통화정책 및 중앙은행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개혁이야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end-fed-really-%E2%80%98make-america-great-again%E2%80%99>